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정책에 대한 논고

김 두 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요 약

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지난 8월 11일 아리안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 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 된지 실로 35년만의 쾌거로, 우리도 늦었지만 우주시대의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내년의 대전 엑스포 기념으로 우리별 2호가 발사될 계획이며, 1995년에는 우리나라 통신위성 무궁화호가 발사된다. 이렇듯 우리도 이제 우주과학 기술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우주개발에 있어서, 후발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주개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 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분야의 현황과 우주기술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우주기술 정책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